

제 10 장 메시아 대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은 원래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고백을 나타내는 구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구동성으로 늘 이렇게 신앙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점차 고유명사와 같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희랍어로 "크리스토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부음을 받은"이라는 형용사구에서 유래하여,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간절히 그들을 구원할 다윗왕의 후손,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초대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을 하나로 이어주는 핵심적 주제가 되는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 구약시대와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나누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대망

(1) 다윗가문의 왕

메시아란 "기름부음을 받은"이란 뜻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대제사장들, 왕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은 특별히 삼하 7:8-16, 시 89:19-37; 132:11 이하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 곧 다윗의 집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주권의 약속, 곧 다윗언약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위협은 상승하는 반면 다윗의 집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 예언에 관한 큰 소망들은 눈 앞에 일어나는 역사적 상황과 더욱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상적 왕권이 실현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과 다윗 주권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강렬하여 진 것입니다. 이사야 9:6-7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이 어떠한 분이신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위 말씀은 네 가지 이름 (영어로 “기묘자라 모사라”는 한 이름, 기묘하신 모사, Wonderful Counselor로 하나의 이름으로 번역됨)으로 불리우는 한 메시아 왕이 다윗의 위에 앉아 영영히 다윗의 보좌와 나라를 보존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은 여호와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여호와와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장래에 오실 의의 왕에 대한 이사야의 묘사는 이스라엘의 의롭게 남은 자에 관한 그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나와서, 곧 불순종하는 나라를 파괴하실 재앙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에 대한 약속과 함께 나옵니다. 메시아 왕과 그 백성과의 이러한 밀접한 연관성은 신약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예레미야는 다윗 왕조가 시드기야로 인해 아주 무력해 졌을 바로 그 때 가장 온전한 구원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와 날, 곧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렘 23:5이하; 33:14-16). 에스겔도 장차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통치자, 곧 여호와와 양떼인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실 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겔 34:23이하; 37:24이하).

고레스가 유대 포로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허락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열렬히 기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가랴 9:9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다윗가의 왕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하스모니안가문이 세력을 얻고 왕위와 대제사장직을 겸하게 되자, 하스모니안왕가가 속한 레위지파의 현존하는 영광에 의해 다윗가의 소망은 빛을 잃게 된 듯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하스모니안가문의 제정권(priest kingship)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쿰란공동체는 새 시대의 문을 열 아론 계열의 제사장적 메시아와 다윗 계열의 왕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편(The Wisdom of Solomon)이라는 경건한 찬송집을 낸 다른 공동체는 하스모니안가문에 대하여 "오만하게 다윗왕조를 황폐케 했다"는 이유로 크게 비난하고 주전 63년 로마 점령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점령한 로마군인들은 곧 오실 다윗가의 메시아 왕에 의해 축출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스가랴,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시므온, 안나같은 사람들이, "솔로몬 시편"을 낸 저자와 일치하는 "그 땅의 경건한 사람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찬양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에게서도 들리며 (눅 1:32이하), 이사야 9:6-7 말씀이 성취됨을 찬양하는 스가랴 찬송시에도 동일한 어조가 나타납니다(눅 1:68-71).

(2) 고난받는 종과 영광 중에 오실 인자

이사야는 메시아 대망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사 55:3), 곧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 왕국 언약으로 그에게 보장해 준 약속들의 총화로 표현하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곧 위로와 귀환에 대해 확신시켜 주는 말씀의 근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 40:1). 다윗왕조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파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말함)의 고레스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이 회복의 취지는 모든 열국으로 오직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데 있었습니다 (사 45:1이하).

고레스와 비교하여, 이사야는 세상에 소리내지 않고, 숨어 인내하는 종으로, 그의 뜻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멸시와 불의, 수난과 죽음을 불평없이 참아낼 이가 곧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2:13-53:12 말씀은 인류 역사에 올려퍼진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그의 백성을 대표하고 그들을 위해 대신 고난 받을 자입니다. 특히 이사야 53:5-6은 꼭 외어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은 다니엘 7:13이하에 나오는 영원하고 우주적인 주권을 받기 위하여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인도된 "인자 같은 이"(like a son of man)와 매우 대조되고 있습니다. 김세운은 다니엘서 인자는 신적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로써,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개인, 곧 대표자(Stammvater)를 의미함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독특한 자기 호칭 "인자"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언약에 나타난 왕으로서의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인자같은 이로 영광중에 나타나실 메시아는 서로가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다양한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고난과 대속적 죽으심,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 사역을 잘 계시하고 있습니다.

2. 중간시대 메시아 대망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해를 위해서,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 문헌들에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브루스는 중간시대 문헌인 "에녹의 비유집"에 있는 많은 구절들 뒤에는 다니엘 7장의 환상이 놓여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비유집"에서 "의를 가진 인자"는 의인들의 도움과 나라들의 빛이 되지만,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가 됩니다.

3. 예수님 당시 메시아 대망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의 예언에 나타난 메시아보다는 군사적 힘을 가진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우세했습니다. 헤롯왕가나 로마 통치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할 정치적 힘을 가진 메시아 기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국민적 정서였겠지요? 한편,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그 땅의 경건한 무리"들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예언에 나타난 메시아 그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눅 2:30-32). 이렇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를 메

시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그들은 곧장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이해와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전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자신이 메시아되심을 늘 숨기도록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자신을 "인자"라는 비밀스러운 자기호칭으로 부르심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그가 메시아 되심을 은밀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올 정치적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에게 높은 자리를 보장해 줄 왕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 가장 밝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45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2:13-53:12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일치하게,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실 사역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종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메시아는 도저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야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의 깨달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전 12:1-3)

지금까지 각 시대별로 개략적으로 메시아 대망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구약과 중간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각각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제시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회적 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민중의 해방자로 부각시키며 이러한 메시아 상이 지금 민중신학, 혹은 여성해방신학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신학이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해방자로서 메시아 상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신 어린 양되신 하나님의 아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 유대전쟁으로 이스라엘의 파멸을 가져왔던 열혈당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상과 더 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를 치유하고 지상에서 우리를 부요케 하는 문제해결사로 메시아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머리 둘 곳도 없고, 두 벌 옷을 갖지 말라고 명하시며,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하신 예수님과과는 거리가 멍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내어 주시어, 십자가에서 피한방울 남김 없이 다 흘리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은 곧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적은 무리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롬 8:18).

제 11 장 초대교회와 유대교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의 범위와 규모, 성전과 절기, 그리고 회당의 역할 등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1.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범위와 규모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7주 후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예배자들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여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9-11에 언급된 그 나라들이 유대인의 흩어짐(diaspora)이 광범위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오순절 후, 로마에 교회를 시작했고, 사도 바울의 이방선교에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디아스포라의 거주지를 지도에서 찾아 보면 그 흩어짐이 얼마나 광범위했던 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소보다미아와 인접한 땅에서 주전 8세기부터 6세기까지 앗수르와 바벨론 포로 이후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애굽 정착은 주전 6세기, 남유대 멸망 후 비롯되었습니다 (열하 25:26). 알렉산더 정복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 지역, 특히 알렉산드리아(알렉산더에 의해 주전 331에 건설됨)와 구레네에 정착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시의 다섯 구역 중 한 구역은 유대인들 뿐일 정도로 애굽에 있던 유대인구는 확실히 대단했습니다. 톨레미왕조와 셀루키드 왕조는 모두 정복지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정착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유대 마카비시대에 유대가 로마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부터, 주전 63년에서 59년, 폼페이가가 유대를 점령한 후, 상당히 숫적으로 늘어난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사회에 서서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기독교교회 시작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은 4-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 절기

유대인의 삶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전 950년 경 여호와 하나님(Yahweh)을 위해서 웅대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전 587년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은 불에 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꼭 70년 후, 스킨바벨과 스가랴,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독려를 받아, 첫 성전보다 수수한 제 2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제 2성전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주전 167-164년까지 3년간 유린되었으나, 마카비 혁명으로 다시 정결케 되어 봉헌되었습니다. 헤롯은 주전 19년부터 다시 복구하여, 그 복구사업은 주후 63년경에야 끝났으나 주후 70년, 로마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배경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 일점일획도 남김없이 다 응하는 것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전쟁으로 주후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장들이 번제와 소제, 전제, 그리고 안식일과 월식, 절기 등을 통해 많은 제물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무리들이 바친 가증한 것이지요. 아몽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1) 칠일간 지키는 무교절 (춘분 무렵, 유월절에 시작). 2) 이로부터 7주 후에 지켰던 오순절, 그리고 3) 초막절 (추분무렵)이 그것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아기 중에 아들은 모두 물에 빠트려 죽이던 무서운 이집트의 학정 아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사 죽이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 이스라엘 장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게 하셨던 첫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면서 (출 12:39) 구웠던 무교병을 기념하여 무교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오순절은 (the Feast of Pentecost),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출 19이하)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생일을 오순절로 잡는데, 이는 그 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기독교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령의 비에 새겨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s)은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거주했던 천막을 기념했습니다(레 23:42). 초막절의 의미는 초대교회와 기독교회에서 어떻게 기념되었을까요? 광야생활을 기념했던 초막절은 교회가 천성을 향해가는 무리들의 모임으로,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고후 5:1-2).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이 세 절기에 성소에 참여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대다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들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기를 힘썼어요. 그들과 함께 몇몇 개종자 (proselytes)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sebomenoi)"도 오곤 했습니다. 성전 봉사는 20세이상 유대 남성들이 내는 반세겔 인두세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세금을 내었던 것입니다. 세금은 한 세겔에 해당하는 두로의 은 드라크마였고, 유대인 두명이 한 조가 되어, 이 동전으로 인두세를 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 징수관에게 주도록 명하신 것은 바로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대체사장들은 점차 이러한 수익이나 보수들 중 가장 큰 몫을 독점해서 대체사장 아나니아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성전을 가리켜 아래와 같이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니라. (마태 21:13).

당시 대제사장들은 강도들의 무리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폭정의 그늘 아래, 일반 제사장들은 절망적 궁핍가운데 고통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원성은 매우 높았고, 열혈당원들은 주후 70년경 대제사장을 찢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5:31에는 기울어가는 다윗왕조에 빌붙어 타락해가던 유대교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질타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3. 회당의 역할

디아스포라(흩어진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성전보다 회당(synagogue)이 그들 종교생활 중심에 있었습니다. 회당예배에는 율법을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순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동부에서는 히브리어 낭송 외에 아람어 (targum)로 1년 주기로, 서부 헬라 사용지역에서는 3년주기로, 70인역본이 사용되는 가운데, 율법을 연속 통독했다고 합니다. 회당의 기원은 포로생활 중, 모여서 특정한 기도문 암송과 시온의 노래들을 하는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회당은 발전하여,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서까지 유대인 생활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양들이 성전 예식에서는 부속적이었으나, 회당예배에서는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회당예배에는 율법을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순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신 갈릴리에도 회당이 있어서, 누가복음 4:16-30에 보면, 나사렛의 회당에 안식일날 가서 이사야 61:1-2 말씀을 읽으신 후,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응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눅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 메시야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어 도리어 예수님을 낭떠리지에 밀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저희를 유유히 지나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주로 알 수 없음을 잘 보여 줍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전 12:3).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선교활동의 무대로서 회당예배는 유대 역사의 한계를 넘어서 초대 기독교 예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순서였던 기원, 기도, 감사, 성경 낭독, 권면, 축도는 처음부터 기독교 예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Eucharist)이 독특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들의 회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 종교에 대한 지식을 모든 이방 도시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행 15:21). 주후 70년 유대 전쟁으로 성전과 그 제식(祭式)이 끝났을 때에도 유대주의가 살아남은 것은 바로 유대 공동

체 생활 속에서 성전의 역할을 회당이 이미 전적으로 대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새 도시에 갈 때마다 그 곳 회당을 찾아가서 그것을 그들의 선교활동의 근거지로 사용하였습니다.

4. 회당과 경건한 이방인들

많은 회당의 회중들 가운데는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방 종교에서 유대종교로 개종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행 13:16).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대표적 인물로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하였습니다 (행 10:2). 할레라든가 음식규례같은 복잡한 유대의식을 지켜야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 개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경건한 자들"이란 그런 유대 규례에 역매이지 않으면서도 회당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전문적 명칭이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방문할 때마다 그러한 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은 즉각적 호소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그들에게 할레나 모세 율법의 문자적 복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약속하는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 당국은 바울을 곧바로 쫓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유대인회당을 그 선교활동의 가장 좋은 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꼭 회당을 먼저 방문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 곧 회당의 가장자리에 있던 "경건한 자들"에게서 교회의 핵심인물들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5. 구약의 정경화 과정

히브리성경의 최종적 한계는 주후 70년 이후, 요하난 벤 자카이(Johana ben Zakkai)와 그의 추종자들의 지도 하에 얄니아(Jamnia)에서 있었던 유대 율법학자의 산헤드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이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삼분된 것은 예수 벤 시라의 손자 시대에 이미 되어진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범위에 대한 이해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순교자의 피에 관하여,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눅 11:51; 마 23:35)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히브리성경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배열하는 전통을 좇아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언서, 역대기 순으로 이해하고 계심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막 12:27)에 대한 그의 아들로서의 독특한 통찰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기초하여 해석하십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예수님이 사단과 대결하실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라고 하시지 않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신 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어, 세 번의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심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심과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십니다 (마태 4:1-11).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삶과 신앙이 좀 실감 있게 이해되는지요? 성전 중심에서, 점차 회당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

였음은 이방인을 위한 바울 선교의 중요한 선교 거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